

## 〈보은기우록(報恩奇遇錄)〉에 나타난 여성 의식

최수현\*

〈차례〉

1. 들어가며
2. 〈보은기우록〉 여성인물들의 혼인양상과 그 의미
3. 가부장제 아래 여성의 삶의 문제 인식과 여성의 목소리
4. 나가며

### 〈국문초록〉

이 글은 〈보은기우록〉의 여성인물들이 혼인과 관련하여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 이 작품에 나타난 여성 의식과 그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보은기우록〉의 남성주인공인 위연청과 관련한 백승설·장미주·설소이는 가부장제이데올로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이지만 이에 순응하고 있기보다는 다양한 층위의 미끄러짐을 통해 그 안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백승설은 유교적 세계관에 충실하며 예법에 따르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예법(禮法)에 대한 시비(是非)를 판단해 적극적이지 능동적으로 다른 인물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인물이다. 장미주와 설소이는 공적 영역으로의 여성의 진출이 막힌 상황에서 혼인을 통해서 남은 여생이 결정되는 것을 인식하고 배우자를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연청을 통해서 이루 어내지 못한다. 그러나 〈보은기우록〉의 작가는 유교적 세계관에 따르면 분명 비례(非禮)를 저지른 이들을 단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미주는 다른 인물과 혼인을 하는, 설소이는 독신으로 살아가는 후일담을 마련하여 이들이 혼인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보은기우록〉이 백승설과 장미주, 설소이라는 가부장제이데올로기 안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여성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것은 당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사회 안에서 그 질곡의 해소를 꿈꾸었던 소설 향유층의 꿈과 끊임없는 여러 층의 미끄러짐을 통해 다층적인 균열을 내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가 만나 직조된 것으로 여겨진다.

주제어 〈보은기우록(報恩奇遇錄)〉, 여성인물, 혼인, 여성의식, 예법(禮法), 절(節)

## 1. 들어가며

〈보은기우록(報恩奇遇錄)〉은 일찍이 정병욱<sup>1)</sup>에 의해 “구질서의 붕괴 과정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으면서 이후 여러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 동안의 〈보은기우록〉에 대한 연구는 인물·갈등구조·연작과의 관계·재화(財貨)의 문제<sup>2)</sup>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가 부자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져 이루어지다 보니

- 
- 1) 정병욱, 「이조말기 소설의 유형적 특징」, 『고전문학을 찾아서』 문학과 지성사, 1976.
  - 2) 정병욱, 앞 논문 ; 김기동, 「〈보은기우록〉과 〈명행정의록〉」, 『국학자료』 26, 1977 ; 이재춘, 「보은기우록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4 ; 최길용, 「조선조 연작 소설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신선희, 「고소설에 나타나는 부의 구현양상과 그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김홍균, 「복수주인공 고전장편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문용식, 「보은기우록의 인물 형상과 작품구조」, 『한국학논집』 28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6 ; 문용식, 『기문소설의 인물연구』, 태학사, 1996 ; 하성란, 「조선후기소설에 나타난 현실인식-특히 화폐경제인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임형택, 「화폐에 대한 실학의 두 시각과 소설」, 『민족문화사연구』 18호, 민족문화사학회 민족문화사연구소, 2001 ; 서정민, 「〈보은기우록〉과 〈명행정의록〉의 연작 양상」, 『된악어문연구』 28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3 ; 최수현, 「〈보은기우록〉의 구성과 갈등구조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5.

여성인물들에 대한 관심은 적었을 뿐더러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거시적인 틀에서 주로 언급되어 왔다. 여성인물에 대한 연구는 부자갈등을 통해 물질에 대한 욕망을 세밀히 그리고 있는 가운데 여성인물들의 애정 욕망 추구 가운데에서도 현실주의적 가치관을 살필 수 있다고 본 연구<sup>3)</sup>와 부자관계의 수직적 갈등에서는 선과 악의 구분이 절대적이거나 여자관계의 수평적 갈등에서는 선과 악이 상대적으로 나타나서 복잡한 인생의 모습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고 본 연구<sup>4)</sup>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견해에 공감을 하면서 여성인물들이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통해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보은기우록>은 전반부에서 부자간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면 후반부에서는 애정갈등을 다루고 있으며 작품 전체를 꿰고 있는 것은 위연청-백승설의 혼인생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인물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는 일을 뜻하는 혼인(婚姻)은 유교사회에서는 위로는 종묘를 섬기고 아래로는 대를 잇기 위해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성리학을 받아들인 조선사회에서도 혼인의 의미 역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며, 재가녀자손금지법, 주자가례식 친영제의 도입, 양친혼인 금지, 일부일처제의 실시로 처첩간의 신분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가운데 가부장제를 강화해 나갔다. 궁녀나 기녀 등과 같은 특정 직업을 가진 여성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조선시대 여성들에게는 공적인 영역으로의 사회적 진출이 막혀있었기 때문에 혼인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포괄해 자신들의 능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계기였다. 그렇지만 여성들이 혼인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드러내기란 예법에 어긋나는 행위였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혼인에 있어 개

3) 문용식, 앞 논문 ; 줄고, 앞 논문.

4) 김홍균, 앞 논문.

인의 의사가 반영되기 보다는 가문에 의해 결정되던 당시 상황에서 남성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가문의 창달과 번영을 주로 다루고 있는 가문소설에서 혼인과 관련한 모습은 일부다처제의 상황을 제시해주고 그 안에서 고통 받는 여성들의 모습이나 친정과 시댁의 갈등으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모습 등을 생생하게 그리면서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보은기우록>의 경우에는 혼인을 이루기까지의 혼사장애의 과정이 벌어지는 하지만 혼인 후 부부간의 갈등이 나타나지 않을뿐더러, 애정욕망을 보인 여성인물들을 혼인을 통해 가문내로 흡수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게 하거나 독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더욱이 여성인물들이 혼인에 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발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 이를 통해 당대 여성들이 혼인에 대해 느꼈던 점들을 생각해볼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보은기우록>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이 혼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혼인의 구체적인 양상을 고찰해 본 후, 이것이 지향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비슷한 시기에 유통되었던 다른 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여성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장서각본 18권 18책을 대본으로 삼는다.

## 2. <보은기우록> 여성인물들의 혼인양상과 그 의미

<보은기우록>은 가문의 몰락으로 생계를 위해 고리대금업과 푸줏간 일을 손수 하는 부친 위지덕과 유교 이념에 입각해 집안을 일으키고자 하는 아들 위연청의 갈등을 전반부에 다루고 있다. 그 가운데 위연청과 백승설의 혼인과 위연청에게 애정욕망을 보이는 장미주, 설소아와 녹운의 이야

기가 펼쳐지고 있다.

<보은기우록>의 등장하고 있는 여성인물들은 위연청이라는 한 남성을 중심에 놓고 설명할 수 있다. 위연청은 도학군자(道學君子)로 지극히 유교 이념을 따라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는 상행위를 하는 부친에게 간언(諫言)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부친에 대한 효(孝)를 최우선으로 하고자하며, 과거 합격을 통해 몰락한 집안을 벌열기문으로 입성하도록 하는 인물이다. 유교적 세계관에 충실한 위연청에게 있어 혼인은 예법을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에 그는 백승설과의 혼인에서 비록 불고이취(不告而娶)를 하지만<sup>5)</sup> 부친에게 인정을 받기까지 백승설과 동침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백승설 이외의 다른 부인이나 첩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위연청을 중심으로 두고 벌어지는 여성인물들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하자.

## 2.1. 가문보존의식과 예(禮)의 주체적 실현

위연청의 배우자인 백승설은 예법(禮法)에 따라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완성해가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혼인 전의 백승설의 모습은 재색을 경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친이 없는 집안에서 가사를 주관하며 무석현 지현으로 있는 부친이 맡은 사건들에 대해 곁에서 조언하며 부친보다 사건을 바라보는 냉철한 판단력이 있는 인물<sup>6)</sup>로 그려지

5) 유교적 이념을 따르는 위연청이 작품 안에서 불고이취를 하게 되는 것은 모친 양씨 부인의 유언과 몽중예언에 의해 정당성을 얻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모친의 유언은 “내 부친을 뜻을 보건터 촌가의 부효의 녹녹한 너조로 내 아히 평생을 그르 흐리니 대순이 황영 취 흐시는 고스로 명문 숙녀를 조구 흐여 고집히 부평을 디히디 말나(권 2)”였으며, 몽중예언은 “일야 몽둥의 양잉잉이 등을 어르 먼저 곶오디 오으는 썰니 무석현으로 향 흐여 괴특흔 인연을 좃고 당자의 근절이 구 흐미 잇거든 숙네를 고집디 말나(권2)이다.

6) 그녀가 사건들을 처리하는 모습은 “너공을 다스려 가스를 술피며 부친을 밧들며 너공의 딴선흙과 부덕의 흡연 흐른 니르디 말고 공이 결승치민을 일일이 너 으로 의논 흐

고 있다. 그렇지만 그녀의 능력은 공적인 영역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부친의 뒤에 숨어서 발휘된다. 혼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모습은 일관되고 있다. 선행(善行)을 한 위연청을 불러들여 포상하려는 부친 백양에게 백승설은 위연청이 선비로 부르는 일이 아니기에 오지 않을 것임을 예견하고 직접 가서 만나야 할 것이라 이야기를 한다. 실제로 위연청의 반응이 백승설이 예측한대로 일어나자 백양은 “싸혀난 자는 뜻이 궤(권2)”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혼약을 맺는 과정에서 백승설은 개입하고 있지 않으며 온전히 백양의 주선에 의해 혼약이 이루어지고 이를 전해들은 백승설은 다만 수습하는 태도를 보일 뿐이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예법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백승설의 삶의 자세를 주어진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만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아 보이는 지점들이 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예법에 맞게 하고자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갈뿐더러 더욱이 비례(非禮)를 저지르는 인물을 훈계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백승설은 위연청과의 혼례를 올려야 할 상황에 부친이 유배를 가서 부재해 있자 혼례 올리기를 거부하는 모습<sup>7)</sup>을 보인다. 때마침 백승설의 외삼촌 두경원이 근처를 지나가게 됨에 따라 두경원을 혼주로 해서 육례(六禮)를 갖추어 혼례를 올리는 것<sup>8)</sup>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모습 역시 유교적 세계관에 충실해 예

---

때 신명훈 결단과 특이한 소견이 크게 보인 흠미 만혼고로(권2)에 나타나며, 부친이 옥중에 있는 죄수들이 형틀에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고자 했을 때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 부친이 죄수들을 풀어준 것으로 인해 이들이 탈옥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부친은 유배를 가게 된다.

7) 첩이 이 곳의 이시미 볼서 규슈의 넘치롤 브런디 오린디라 홀노 후의를 고딕히미 아니라 군즈는 스성의 명이 잇시나 첩은 부친이 아니 계시고 둥미 업스니 이는분 혼매 갖가온디라(권8)

8) 길일이 귀격수일이라 두공은 쇼저롤 하쳐로 드러가고 싱은 집으로 도라와 녹네를 제

법을 따르는 백승설의 모습을 부각시켜주기 위한 것이며, 주자가례식 혼례를 치르는 모습을 강조하여 백승설과 위연청의 혼인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려 한 것으로 읽힌다.

유교적 세계관에 충실하며 예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는 백승설은 혼인을 한 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 나간다. 그런데 그녀는 주어진 것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은 위씨 집안의 가부장인 위지덕을 독살의 위기에서 구해내고, 배우자인 위연청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남복(男服)을 하고 구현옹을 찾아가 위연청을 살려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며, 위씨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인 위천보를 출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런 가운데 그녀는 상층 사대부가 여성의 일인 봉제사(奉祭祀) 빈접객(賓接客)의 임무, 시아버지 음식 준비, 길쌈과 같은 여성 노동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모습<sup>9)</sup> 등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특히 위연청과 함께 황제에게 반교문(頒敎文)을 받는 모습 그리고 노비로 가장하고 들어온 장미주를 예법으로 훈계해 돌려보내는 장면에서 백승설의 적극성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서술자에게 백승설과 위연청 부부의 관계가 대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계희 희하고 길일이 넘흐매 삼경이 디게에 잇고 박냥이 문이 그득 흐어 친영 흐는네 물  
일몰시 성이 비록 스세박브득 대순의 고스톨 효축 흐나 스스로 조처죄인 흐는고로 녹  
네빅냥의 대례를 폐치 아니나 고약은직의 속습을 물니치고(권8)

- 9) 부인이 당흐의 느려 신성문후를 맞츠미 승당입실흐여 장복을 그르고 축흐외셔 다시  
침션을 다스려 아황이 느작흐고 쥬피 고요흐어 십지신옥이 느는듯 흐더니 놀이 시미  
즉시 눈두를 넘흐니 쥬방 시네 금노의 솟출 걸고 도래의 어육을 싣쳐 섬길시 부인이  
친히 자변 할단흐여 평임의 흙담을 조미흐고 찬선을 전홀흐어 시중의 식상을 갖초니  
금반옥귀에 희찬이 유이흐고 산지가 청향흐어 버린거시 풍결흐고 혼체정결 흐더라  
(권14)

이 부부는 크게 다투고 다투지 않더라 하니 혼비백색의 땀을 흘려 겁하의 여성이여늘 가인이 의귀를 분발하여 천금을 버리고 니도의 건져 빼 고단의 안귀하게 하고 하니 구획이 저해하여 독련의 잔천이여늘 신고히 옥체를 잔해하고 심산의 구약하여 양세에 지성흔 지라 그 지아비 아닌즉 그 안해 죽인지 오리고 그 체 아닌즉 그 낭인이 었디 오날날이 이시리오 이는 턴지 괴봉이오 만덕의 가인이러라(권8)

위의 예문은 백승설이 위연청을 구하고 싶을 때 이들 부부에 대해 서술자가 묘사한 부분이다. 서술자는 백승설과 위연청의 관계를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살아가는 상생의 관계로 보고 있다.<sup>10)</sup> 이러한 시각은 작품 전체에 이어지고 있는데 몰락한 가문을 창달하는 일이 남성주인공인 위연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인 백승설과 함께 하는 가운데 가능한 것임<sup>11)</sup>을 강조 한다.

위연청의 과거 합격 후 위지덕을 치료하러 갔던 태의 범진원에 의해 위연청과 백승설의 효행이 알려져 황제가 반교문을 내리게 되는데 이 때 위연청에게 ‘문정순효선성’, 백승설에게 ‘절효정의부인’이라는 봉호를 함께 내려준다. 백승설에게 반교문이 내려진 것이나 봉호가 주어진 것은 단순히 위연청의 아내이기 때문에 위연청의 벼슬을 하게 됨에 따라 직품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이전에 보여주었던 행위들에 의해 평가받아

10) 참고, 앞 논문, 68-71면

11) 혼약 후 창무에 팔린 위기에 처한 백승설을 위연청이 구해내고, 백승설은 위연청과 위지덕의 생명을 구해내며, 위연청의 과거합격으로 인연 유배 간 백양이 이부시랑으로 복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보은기우록> 말미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위국공이 한미흔디 소출노 비부지 즈로 빼 정금이 마 춤니 화로의 썩고 니검이 스스로 갑풀의 소샤 문혹이 균유를 압두 하고 효행이 성인과 병구 하니 뜻는 즈로 절연이 손을 타고 니러날 거시어늘 빅부인이 스텝의 경계를 직회여 부즈의 맛음을 빗최미 몸과 그림즈 궂호니 이 진실노 절퇴의 아름다운 말이라 고로 슈데 보은기우라 하고 일명을 탄지가인이라 하니라(권18)”

내려진 것이다.

백승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가장 강하게 내고 있는 부분은 위연청에게 반한 장미주가 집안에 들어왔을 때이다.<sup>12)</sup> 미주가 의탁할 곳이 없는 신세임을 자처하고 노비로 받아주기를 청하러 왔을 때 그녀는 미주를 본 순간 미주의 정체와 의도를 알아채고<sup>13)</sup> 집에 들어가기 2번 거절하다가 차라리 집에 들어서서 엄숙한 가법을 보고 스스로 물러가기를 바라는 마음<sup>14)</sup>으로 집에 들이는 것으로 그려진다.

백승설은 장미주를 집안에 들이게 될 때 초래할 분란에 대해 위기를 느꼈지만 이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 아래 장미주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sup>15)</sup> 그 후 장미주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할 때 미주를

12) 문용식은 선행연구에서 백승설이 전반부에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영웅으로 제시되어 있어 가문의 창달이 한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의 자각이나 존재를 인식시키고자 하는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후반부에서는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부장적 권위를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는데(문용식, 앞 논문, 57-58면), 필자의 생각으로는 전반부에서 백승설이 보여주고 있는 여성 영웅으로서의 모습도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후반부에서 그녀가 보여주는 행동 역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각하고 행위하고 있다는 여겨진다.

13) 그녀의 능력을 서술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원녀 빅부인이 평생 총혜영 명함미 귀신갓던 고로 항궤 우소의서 어스 턴서 공부할 적 지방참문 호여 스스로 불언 지중 작각묘방호여 빅스의 무불통지라 구턴현니의 신명호를 어더는지라(권14)

14) 니 처음 머무르지 아니러 호더니 곳쳐 생각호미 쾌히 머뜨러 망녕된 녀를 기리 쓴 케 호미라 또 번거히 전설치 말나(권14), 호 번 눈을 드러 미주의 근본을 찌닷고 노파로 그 형지를 주유케 호른 제 부귀교야로 호치귀 호고 가법에 형을 보아 교염 조되 코져 호미라(권14)

15) 실제 장미주를 집안에 두었을 때 초래할 위기는 백승설에 의해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뉴한을 통해 언급되고 있다. 아내 진씨를 통해 장미주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뉴한은 어사가 황제의 사훈을 물리쳤던 일과 비교해 집안에 들어온 여성이 장미주임을 간파하고, 그녀가 어사를 계속 바라보았을 경우 음심(淫心)을 끊을 수 없을 것이며, 더 나아가 위지덕에게 애원이라도 하는 경우 어사가 부친의 명을 거역하지 못해

불러 장장 몇 장에 걸친 긴 대화를 나누며 어떠한 경우라도 여자가 배우자를 스스로 고르는 것은 예의를 벗어난 일임을 훈계한다. 백승설의 이런 모습은 장미주와 같은 여성이 들어왔을 때 투기로 인해 장미주를 돌려보내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연청이 장미주에 대한 애정을 보이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기로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오히려 사대부가 여성이 비례(非禮)의 행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가문의 분란을 감지하고 집안을 보호하고자 하는 대처로 읽힌다. 더 나아가 여성이 여성에게 가르침을 주고 배우게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법(禮法)을 수행하기만 하는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예법(禮法)에 대해 스스로의 판단 기준이 세워져 있고 이를 주체적으로 적용해나가는 집행자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 2.2. 애정욕망의 발현과 절(節)의 재해석

혼인에 있어 배우자를 자신이 직접 고르는 것은 주자가례식 혼례절차에 있어서 남자든 여자든 모두 불가능한 일이었다. 유교 국가임을 자처했던 조선시대에는 형식을 갖춘 의례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조선시대에는 자유연애가 금지되고 가문과 신분에 따른 중매결혼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

장미주를 집안에 들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각이 이에 미친 뉴한은 아내 진씨에게 여사가 병이 있어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계교를 가르쳐 미주가 집에 돌아갈 도록 결심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한다. “뉴한이 진씨 소견으로 당국구 미희로 보니 무균의 무중지인이라 용피 괴이하고 거지불범 허를 드르미 어스의 스흔 스양흔 곡절을 비기니 다르니 아니를 씨다라니 본디 영니다모흔 바로 어스롤 피셔 윤익기성 허여 죽히 경눈보필도 되염죽 혼지라 저 소저의 뜻이 크고 설시 심상치 아니흔지라 이제 조석의 어스의 품모를 보아 정욕을 도도면 줄연이 마음을 쓴허 물너가지 아닐지라 이런 비웅의 계집으로 주인 옥가튼 지절의 뉘 될가 허고 쏘 전세 부귀로 궁모극 계로 혹 시중의 뜻을 동득허여 어스의 난쳐흔 경계가 될가 디경 허여 지혜를 끼쳐 공명이 정히 이교로 주유 격동허던 계교로 긴흔 마디의 저를 격동허미러라(권14)”

신분이 높을수록 당사자의 의사는 무시되었다. 특히 양반가에서는 결혼 당사자가 아닌 주혼자가 결혼을 주관했으므로 신분이 아닌 사랑의 감정으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없었고, 해서도 안 되었다. 결혼은 당사자가 아닌 주혼자가 주관해야하므로 만약 주혼자 없이 결혼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화됨은 물론이고 심하게는 화간(和姦)이라 하여 간통으로 처벌받기도 했다.<sup>16)</sup> 배우자를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자 하는 장미주·설소아·녹운의 행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예(禮)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위연청에게 반하여 애정욕망을 보이는데 그녀들이 바라던 배우자에 대한 모습과, 그녀들의 신분, 자의식에 따라 각각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보은기우록>에서는 가부장을 독살 위기에 몰아넣고 잦은 횡절을 감행하며 반역자의 부인으로 살아가는 하층신분의 녹운을 제외하고 선행연구<sup>17)</sup>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백승설과 같은 오히려 더 별렬가문이라 할 수 있는 집안의 자녀인 장미주와 설소아의 경우 서술자에 의해 음행(淫行)으로 여겨지는 행동 후에도 징치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위연청과 혼인을 하고 싶어서 자신이 지니고 있던 모든 것을 내던지고 노비로 가장하고 위연청 집에 들어간 장미주나, 남장을 하고 위연청과 대면한 설소아가 혼계를 듣고 감화 받았다는 점은 위연청과 백승설이 뛰어난 인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독자에게 쉽게 수궁이 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는 장미주와 설소아가 혼계를 듣고 회과한 것만이 아

16) 정성희, 『조선의 성풍속』, 가람기획, 1998, 36-57면

17) 문용식은 장미주를 설명하는 가운데 장미주에 대한 가치 평가의 변모는 독자들의 취향이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것을 전면으로 내세우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피력하고 있다고 보았다. 문용식, 앞 논문, 53-54면.

나라 장미주는 금슬은정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것을 이룰 수 없음에, 설소아는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기<sup>18)</sup>에 위연청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술자가 장미주와 설소아가 백승설과 위연청의 혼계를 받고 돌아간 이후 15권 말미에 “차권이 다만 군자숙녀의 형적을 기록하기를 위하미라 두낫 음녀를 울린 비 아니로디 성인이 시를 지으미 관저 규목을 머리호고 정위음풍을 비홍하니 이를 기록지 아인즉 엇지 된고”로 마무리 하고 있지만 실상 그녀들의 이야기가 15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권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단지 백승설과 위연청의 훌륭한 도덕성이나 인품을 보여주기 위해서만 설정된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sup>19)</sup> 더욱이 그 후에 보여주는 그녀들의 행적들은 앞서 제시된 그녀들의 성격과 부합해서 그려지고 있다.

### 2.2.1. 애정중심의 부부생활 욕망과 실현 : 장미주

언니가 황제의 총비여서 아버지가 국구인 장미주는 별열가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위연청의 모습을 보고 반해서 부실(副室)<sup>20)</sup>을 감수하고자 하

18) 소아의 위인은 미쥬로 진월궤트니 잇스니 툃부호는 고안은 일체로디 미쥬는 금슬은정을 크게 녀어 비록 옥인기남이나 부창부슈호여 교철갓트미 업손즉 다만 그림을 디하고 화월을 구경호미니 엇지 인성의 즈미 잇스리오 호는 고로 위어사 풍치를 흠션할 지언정 교혹을 불위하미 업난지라 고로 부인 교회를 번연 기건호미 위어스사모 호미 끈허진 고로 더욱 쉬오미오 소아는 형시 숙녀의 머리실지언정 바우 구호문 군자 성현과 도혹 문장을 원호여 군자의 소대를 넘어도 혼번저 스텝의 안히되어 종신의 얼굴을 디호고 도혹을 것지은즉 스무여한이라 하니 실은 춘정은 담연호고 명예를 취중호미라(권16)

19) 서정민은 장미주와 설소아의 사건에 대해 독자는 위연청과 백승설이 각각 설소아와 장미주에게 건네는 도덕적 훈계 발언을 경청해야 하며 15권 말미에 나타난 서술자의 직접적 진술을 통해 이 사건의 서술 목적과 서술 방식을 해명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달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서정민, 앞 논문, 271-272면

20) 부실(副室)의 사전적인 의미는 첩(妾)이나 가문소설에서는 ‘둘째부인’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미주의 부친인 장국구는 딸이 황제의 총비일뿐 아니라

는 인물이다. 그런데 그녀가 부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연청과 혼인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은 단지 위연청의 외모에 반해서인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장미주는 여성에게 있어 정절(貞節)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결혼을 한 후에는 배우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배우자를 골라야 한다는 믿음<sup>21)</sup>을 가진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더하여 그녀가 꿈꾸는 혼인 생활은 애정이 중심이 된 다정다감한 부부생활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황제가 주선한 사혼(賜婚)이 실패로 돌아가자 장미주는 위연청의 집에 노비로 가장하고 들어가 위연청 부부의 생활모습을 지켜본다. 이때 “부부의 엄공집네 ㅎ여 디빈이 디흙 ㄱㅎ믈 보매 칭찬탄복 ㅎ믈 마지 아니 ㅎ나 일변 지미업시 너기더니 그 멸족 취침 ㅎ믈 보고 화 ㅎ여 빅부인이 되지 못

자신 역시 조화에 참여하고 있는 인물이다. 또한 위연청에게 애정을 보이는 설소아의 부친인 안도후 설공도 조화에 참여해 정사에 관여하고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런 위치에 있는 그들의 딸인 장미주와 설소아가 ‘부실(副室)’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첩(妾)’의 지위를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읽히지 않는다. 이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 일부다처제 사회임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 대부분의 가문소설에서 원비(첫째부인), 차비(둘째부인), 삼비(셋째부인)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더욱이 <보은기우록> 안에서 첩을 지칭하는 용어는 ‘첩’, ‘편방’, ‘쇼희’로 사용되고 있다. ‘부실(副室)’이라는 용어가 첩(妾)이 아니라 ‘둘째부인’으로 사용되고 있는 예는 <유씨삼대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피 다 짓거 아냐 당시를 나아오라 ㅎ여 경계 왓 그디는 상셔의 스랑 ㅎ는 일 너로 그릇 돈 ㄹ의 부실이 되어 우호로 공쥬 계시고 위치 구 ” ㅎ니 쇼년 너 즈의 불평 ㅎ미 이실 듯 ㅎ거니와 감히 황녀를 항거치 못 ㅎ 배오(권1)”, “부인이 그 인용과 낭성을 듯고 좌우로 붓드려 올너 그 손을 잡고 탄식 왓 그디 청규머질노 오 ㄹ의 부실이 되어 도로혀 ㅎ이 뉴미의 밋치이게 ㅎ니 이 다만 그디의 운쉬 불행 ㅎ 분 아니라 ㄹ즈의 제가 못 ㅎ 죄라 엇디 ㅎ노 그디 죄 되리오(권4)”

21) (장미주) 너즈 정절이 옷듬이라 ㅎ믈 ㅎ 몸으로 두 사를 섬기지 아니 ㅎ는고로 일여 지초 ㅎ면 종신불기라 ㅎ미라 …… 너지 ㅎ갓 이 글[열녀전]의 엄 ㅎ 네 룰 직회고 소소 넘치를 크게 너여 스사로 평성을 도모치 아니다가 빅년 신세를 그릇 함 ㅎ니 임의 만 나미 그르더 비록 취부추한이라도 네를 이룬 후는 진실노 바리지 못 ㅎ지라(권15)

호를 흔하더니 못참내 은근한 거동과 희학하는 소리 업스믄 보고 크게 의심(권14)”는데, 이 와중에 위연청이 토혈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뉴한의 처 진씨로부터 위연청이 몸에 병이 있어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말<sup>22)</sup>을 들은 후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굳힌다. 다정다감한 부부생활을 하는 것을 꿈으로 삼고 있던 장미주는 진씨의 말을 듣고 “저 군지 영준의 뱃시로 부인의 소졸호를 가졌고 인걸의 지국이 도로혀 티상의 병이 이시믄 드르니 이런즉 저의 고은 얼굴과 뭉은 소리 스출 구경호며 달을 첨망호미니 이목의 즐거울 쓰름이오 평성의 락물호미 극(권14)”다고 생각하며 더하여 엄격한 위씨 집안의 가법을 보고 돌아갈 마음을 굳히는 것이다. 백승설의 훈계를 들은 후 장미주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행실을 개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미주는 회과 후 설소아의 외사촌인 왕경린과 혼인을 해서 자신이 바라던 삶을 살아가는 것<sup>23)</sup>으로 그려진다.

뛰어난 배우자를 만나 다정다감한 부부생활을 하는 것을 혼인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장미주가 그토록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온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장미주가 여자의 정절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남편을 잘못 만나면 일생을 그르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작은 예를 어기고서라도 배우자를 스스로 구하는 것이 옳다고 강하게 믿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백승설은 예를 지키는데 있어 작은 예절부터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배우자를 스스로 구하는 행동은 부덕

22) (뉴한의 처 진씨 우리 가군의 근심하는 말을 드르니 심경이 허약호스 여식의 분디 담연호신 병화이 계시니 엇지 망조호 금심이 아니리오 일노 극히 넘너 호신다 하니 가군이 일노 배 주야 원탄호는 비라 금동화녀의 경스롤 군즈 숙녀의 복록이 더오미 어려오니 가군이 텃의롤 호호들 미츠리오(권14)

23) 당가 부피 구호호여 레로 배 도라가니 외모 상적호고 녀지 일항이라 ..... 둥디 화락호여 자녀를 갖치 두고 위시와 세 피 되어 벼술이 복야의 니르니라(권 16)

에 어긋남을 피력한다. 장미주가 백승설의 이야기를 들은 후 깨달음을 얻어 개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도 왕경린과 혼인하여 자신이 바라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만 극대화된 정절과 엄격한 부덕을 요구하던 속에서 여성들이 느꼈을 고통을 장미주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2.2.2. 도학군자(道學君子)에 대한 욕망과 지상여선(地上女仙) 되기 : 설소아

장미주와 같이 배우자를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인물인 설소아는 평소 도학군자(道學君子)와 인연을 맺어 하루라도 함께 하는 것을 꿈으로 여긴다. 더욱이 서술자는 설소아를 “용피 더욱 아릅답고 뜻이 크고 지죄 만(권13)”<sup>24)</sup>아 장미주보다 뛰어난 여성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녀는 사촌인 왕경린과 부친인 안도후 설공을 통해 위연청의 도학군자다운 면모를 들은 후 혼인을 결심하고 강선누<sup>24)</sup>에서 위연청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치밀함은 황제가 내린 장미주와의 사혼을 위연청이 물리친 것을 보고 체면 때문이라 생각하고 사촌인 왕경린을 통해 위연청에게 중매를 넣는 것에 이어진다. 그러나 이마저 실패하자 그녀는 직접 남북을 하고 위연청을 찾아가 대면한다. 이 때 위연청은 설소아를 혼계해서 회과하게 한 후 돌려보낸다.

장미주와 마찬가지로 설소아에 대해서도 그 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는데 특이하게 설소아는 지상여선이 되어 이름을 떨치며, 황제가 위연청과의 혼인에 중매를 서겠다고 나서지만 이를 거절한 후 평생 독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려진다. 16권에서 장미주와 설소아

24) 강선누는 장미주와 설소아가 조정에서 조회를 마치고 나오는 신하들을 보기 위해 설치한 누각이다.

는 회과를 한 후 집에 돌아와 독서를 열심히 하다가 각각 왕경린과 혼인하고 지상여선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때 이 두 사람이 향방이 갈리는 지점을 서술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장 설 낭소제 빅부인의 준 바 녀교를 진심 혀여 날이 기우되 밥떡기를 잊고 밤이 진혀되 잠즈물 니져 점점 세 오르되 의연이 냥기 숙네 된지라 다만 소교와 짐심이 다른 곳이 잇스니 장소저는 비록 파천즈욕 혀여 비례의 아니 범흔 곳이 업스나 부인의 기우혀를 바닷고 어스로 간섭지 아닌지라 장시 어스를 보고 스모혀여실지언정 어시는 그 자취를 보지 못혀였스니 임의 기심 슈독혀며 돈연이 길이 난혀였는지라 …… 설소저는 작용이 다른지라 처음에 불고념치혀고 어스의 스미를 잡앗스나 위어스 마음인즉 강한의탁혀지라 찌치지 아이른 제 자결홀 줄 알미오 조용히 문답 혀든 그 회과 홀줄 짐작 혀미라(권16)

비례를 저지르고 회과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장미주를 위연청이 아닌 왕경린과 혼인시키기 위해 작가는 나름대로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장미주의 혼인을 설명하기에 앞서 서술자는 위의 예문과 같이 장미주가 혼인할 수 있었던 이유를 구태여 덧붙여 언급해 주고 있다. 서술자는 장미주가 비록 비례를 행하였지만 설소아와는 달리 장미주가 위연청의 얼굴을 보았을지언정 위연청이 장미주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혼인이 가능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장미주는 위연청과의 혼인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외모를 치장하고, 위연청의 집에 잠입하는 이유 역시 백승설보다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해서 위연청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하였던 것이며, 위연청의 집에 들어가서는 부부의 침실을 엿보는 것에 비해 설소아는 백승설이 위연청과 같은 도학군자의 아내가 되어 살고 있다는 부러움을 드러내

는 것 이외에 일관되게 위연청과 학문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본다면 내외법에 의해 위연청과 얼굴을 마주대했느냐에 대한 평가와 달리 마음속으로 행한 비례의 정도는 장미주가 설소아보다 오히려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작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지상여선이 되어 독신으로 살아가는 설소아의 후일담을 설명하기에 앞서 설소아로 하여금 스스로의 목소리로 자신의 의지를 알려주게 하고 있다.

(황제) 위즈의 처음 녀되호문 그디 경의 녀형 업시물 혐의 호미니 이제 옥을 가다담고 어름을 뼈셔시니 짐이 네로써 도라보 나리라

(설소아) 위연청이 비록 년소호나 신을 금슈지항으로써 인도에 도라가게 호니 츠는 중싱호 아버지 스승이라 성 피 신으로 뼈 오히려 저를 슈의호는가 의심호시니 여차죽 턴호의 아버로뼈 친압 호는 혐의 잇스며 스승을 슈절 호는 네도 잇스리잇가 다만 신이 몸을 더러오미 업스나 막음을 더러였는지라 지기잇는 사롭인 즉 신을 의심치 아닐 거시오 혹 관더호 남지 회과호를 용셔호나 첩이 차마 안연이 부덕으로 지아비를 섬기지 못호오리니 녀지 중부홀 면목이 업스 즉 무슴 싱세지낙이 이시며 이를 관겨히 아니 녀긴즉 신이 또 감심호여 조츄물 불원호옵나니 임의 청한호물 어더 기리 겁히 드러시니 턴위 지엄호시나 가히 곳치지 못하리로소이다(권16)

내외법을 어겼던 자신의 행동을 당대의 기준과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설소아는 자신이 몸을 더럽힌 적이 없지만 마음을 더럽힌 것으로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기 있는 남성이나 관대한 다른 남성과의 혼인이 가능하지만 자신이 원치 않아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음을 황제 앞에서 피력한다. 장미주와 달리 자신이 독신으로 남기를 원하는 이유를 여성의 정절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사회적 관습과는 달리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히면서 의식의 자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sup>25)</sup> 그런데

더욱이 유교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독신으로 살아가며 도가에 귀이해서 살아가는 설소아의 행동은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황제에게는 “정심슈훙진인”이라는 도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며 서술자는 설소아가 “상등 위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sup>26)</sup>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2.2.3. 성욕(性慾)과 징치 : 녹운

<보은기우록>에 등장하는 여성인물 중 유일한 악인인 녹운은 고소설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악인형 인물에 해당한다. 그녀가 위연청에게 애정욕망을 보인 장미주와 설소아와는 달리 하층신분에 속한 여성이라는 신분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본래 창기였던 그녀는 향환의 시첩이었다가 무고가 발각되어서 거짓으로 궁녀로 가장해 위지덕의 첩이 된 인물이다. 위지덕의 첩이 되기 전부터 그녀는 이미 정절(貞節)과는 거리가 먼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다가 그녀는 자신의 의붓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위연청의 외모에 반해 그를 유혹하다가 거부당하자 몇 차례에 걸쳐 위연청을 죽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위연청뿐 아니라 위지덕마저 독살하고자 한다. 즉 그녀는 위씨 집안의 대를 잇는 가부장들을 차례로 죽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며 위부를 위기로 몰고 가는 인물인 것이다.

위씨 집안이라는 한 가문을 위기에 몰아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악행의 수준은 결국 나라를 위협하는 인물과 동조하는 것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지덕의 독살을 시도한 후 그녀는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다가 해적에게 잡혀 반역자의 무리인 능선자에게 받쳐지고 압채부인이라는 호칭을 얻은 후 그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

25) 줄고, 앞 논문, 79-80면

26) (서술자) 설소의 건군섭진과 서장디월의 비천 홀를 즈임턴 바로써 군자의 교화를 감복하여 탈연이 건념을 쓴허 표표히 황황홍진의 썬어나니 상등 위인이 아닌즉 엇디 이를 어드리오(권16)

다. 한 가문과 더 나아가 나라까지 위협하는 그녀는 결국 반란군의 무리를 진압하러 온 위연청에 의해 참수당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한다.

### 3. 가부장제 아래 여성의 삶의 문제 인식과 여성의 목소리

조선후기 여성들은 혼인이외의 다른 삶의 모습을 꿈꿀 수 있었을까? 삼종지도(三從之道)가 당연한 윤리 규범이었고, 여성이라면 혼인을 해서 시댁의 부계혈통을 이어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누구나 생각하던 시대였으며, 경제적으로도 17세기를 지나면서 외손봉사나 사위를 포함한 윤회봉사가 줄어들게 되면서 더 이상 여성의 재산상속이 축소되는 사회 현실<sup>27)</sup> 속에서 그녀들에게 혼인이외의 다른 선택이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본다. 남성과는 달리 공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한 여성들에게 혼인을 통해 시댁의 일원으로 그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을 것이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창작되어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은기우록>은 조선후기 사족 여성의 관심과 생활을 형상화하고 있다. 예법을 따르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안에서 가부장을 지키고 봉제사 빈객객을 충실히 해 나가며, 노비들의 길쌈을 주관하면서 지극히 자신에게 부과된 삶을 살아가는 백승설의 모습은 당대 사족 여성이 따라야 할 모델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대개의 가문소설에 등장하는 부부간의 갈등이나 처처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이 작품은 9권에서 위연청의 과거합격으로 전반부의 부자갈등이 해소되고 나면 예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백승설과 위연청 부부의 모습 때문에 자칫 도덕교과서와 같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27)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2003, 174-176면

그러나 18권이라는 장편소설을 교훈성만이 아니라 흥미를 가지고 독자들을 붙잡는 힘은 백승설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수동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고, 이러한 점들이 위연청과 함께 대등하게 평가받고 있는데서 기인한 것이라 여겨진다. 사족여성의 정체성은 신분제 사회에 편입된 여성 일반과 마찬가지로 타인 특히 가족과의 관계성 속에서 규정된다. 이러한 관계성을 최후로 통어하는 것이 가부장제의 지배담론이라고 한다면, 사족 여성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배담론을 내면화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승인 받는 방식을 취한다고 할 때<sup>28)</sup>, 백승설의 보여주는 행동과 그녀가 받는 평가는 이 작품을 읽는 사족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는 인상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문화적 통념과 더불어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을 어렵게 하는 사회 경제적인 사회 구조는 결혼에 관한 여성의 욕망을 구성하는데 개입한다<sup>29)</sup>고 할 때, 혼인을 한 후에는 다른 가능성의 여지가 없기에 최선을 다해서 배우자를 찾고자 하는 장미주나 설소아의 모습은 단지 외모나 도학군자에 반해 남성에게 애정욕망을 가지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속 그녀들은 끊임없이 스스로 배우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확인<sup>30)</sup>하고자 한다.

대개의 가문소설에서 그 혼인은 정혼에 의해서가 아니면 천정혼에 의해

28) 박애경, 「장편가사 <이정양가록>에 나타난 사족 여성의 삶과 내면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호,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3, 434면.

29) 이박혜경,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결혼과 가족」, 『새 여성학 강의』 동녘, 2001, 191면.

30) 장미주가 위연청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할 때 사람을 시켜 볼 일이 아니라 친히 보아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나, 부친이나 사촌을 통해 위연청이 도학군자임을 알고 반한 설소아 역시 위연청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모습이 그러하다.

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발적으로 신부감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명주기봉>·<소현성록>·<옥란기연> 등과 같은 작품에서 남성의 애정욕망에 의한 자발적 혼인은 성공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남성 주인공이 아닌 부차적 인물에게 적용되면 <현씨양옹쌍린기>의 룡취옥 등과 같이 애정적 욕구를 지니는 인물들이 대개는 여성으로 그려지며 이들 여성은 혼인에 성공할지라도 비록 악인은 아니나 부정적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sup>31)</sup>

여성이 적극적으로 내보인 애정욕망이 혼인으로 완성되지 못하고 남성 주인공에 의해 여성이 혼계를 받고 돌아오는 것으로 그려지는 작품으로는 <보은기우록> 이외에도 18세기 작품인 <옥원재합기연>과 <완월회맹연>이 있다. <옥원재합기연>의 이장주는 소세경에게 반해 고모를 통해 황제의 사혼을 주선하나 거절당하자 남복을 하고 소세경을 만나나 그의 혼계를 듣고 돌아와 회과한다. <완월회맹연>의 만초란과 석순영은 안남을 토벌하러 나선 정인성에게 애정욕망을 품는다. 만초란은 정인성의 외모에 반해서 집을 나와 남복을 하고 정인성을 찾으러 다니며, 석순영은 도적에게 납치된 것을 정인성이 구해준 것을 계기로 그와 혼인을 하고자 한다. 이 때 석순영이 먼저 고백을 하러 정인성에게 갔다가 그의 혼계를 듣고 돌아와 회과한 것으로 그려지며, 이를 지켜본 만초란은 정인성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을 알고 여승이 되어 내세에 만날 것을 기원하는 모습을 보인다. 선행연구<sup>32)</sup>에서 <완월회맹연>과 <옥원재합기연>의 이러한 모습들은 주로 비례를 범한 여성인물을 도덕군자인 남성인물이 혼계함으로써

31)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 64-76면

32)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142면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창관호연록〉·〈옥원재합기연〉·〈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166-167면 .

그들의 인품을 돋보이게 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완월회맹연>의 만초란과 석순영에 대해서는 여자란 모름지기 부모의 중매에 따라 결혼해야만 한다는 수동적이고 봉건적인 결혼관에서 벗어나 가히 봉건적 금기를 뒤흔들 만한 대담한 사랑을 시도했다는 점을 통해 작가가 여성들도 마음에 드는 남성을 보면 사랑을 느꼈고 실현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지적<sup>33)</sup>도 있었다. 이러한 모습의 여성들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은 당대 소설 작가나 소설 향유층에서 혼인 이외에 다른 삶이 가능하지 않은 여성들에게 배우자를 만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러나 <옥원재합기연>이나 <완월회맹연>에서 그녀들의 모습은 삽화처럼 제시되고 있으며<sup>34)</sup>, <완월회맹연>의 만초란이 남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여승이 되어 내세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제시되고 이런 모습은 작품 안에서 비판받는 것<sup>35)</sup>으로 그려지고 있다.

<보은기우록>은 자발적 애정욕망을 보인 장미주나 설소아가 회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거나 독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더욱이 왕경린과의 혼인을 통해 자신이 바라던 애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장미주의 모습을 제시하고, 도가의 여신으로 변모해 독신의 삶을 살아가는 설소아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33) 정창권, 『한국고전여성소설의 재발견』, 지식산업사, 2002, 193면

34) <옥원재합기연>은 21권의 분량인데 이장주의 이야기는 12,13권에 걸쳐 나타나며, <완월회맹연>은 180권 분량인데 이 중 만초란, 석순영의 이야기는 61-63권에 나타난다. 특히 <완월회맹연>의 경우 정인성이 안남을 토벌하려 갔을 때 만초란과 석순영의 이야기가 펼쳐지며, 만초란과 석순영의 신분도 정인성의 집안과 같은 벌열가문이라기 보다는 양주 자사와 절도사 정도로 그려지고 있다.

35) (원수) 다만 만가녀의 단발 위리흔 바를 뜨러 그 적실 홀물 드르미체찰을 위 현어 스 절 인눈홀여 심산 폐인이 되를 심히 기것 아니 홀더라(권63); (원수) 만시의 망영된 형시 스스로 유체를 상홀오며 인눈을 사절홀여 이단의 도라가물 초석홀는 중(권63)

있다.<sup>36)</sup>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작품들과 달리 이들 여성을 훈계하는 인물이 위연청만이 아니라 이 역할을 백승설도 담당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여 준다.

조선시대 독신여성들에 대한 기록은 당시에 독신여성이 적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이야기가 철저하게 역사의 뒷안길로 묻혀버렸기 때문에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영조 때 참찬관(參贊官)이었던 박문수는 “혼가(婚家)를 제때에 하게 함은 왕정(王政)에서 먼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지금 서울과 지방의 처녀로 나이가 2,30이 넘도록 시집 못간 자가 매우 많아 원망이 가슴에 맺혀, 화기(和氣)를 손상할 것입니다.(『영조실록』 127, 부록;42집 241면, 영조대왕 행장)”라고 주장하였는데, 처녀들의 혼례를 지원해주는 논의는 그들이 화기를 손상시킬까봐 우려되기 때문이었다. 화기가 상하게 되면 나라에 재앙을 불러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집못간 처녀는 조선시대 부정적 징후로 읽힌 것<sup>37)</sup>이다. 이런 사회 현실에서 여성이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로 여승이 되는 것 이외는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사회가 유교적 세계관을 표방하면서 불교를 배척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여 이러한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는 가문소설 역시 불교에 대해 관대하지 않다.<sup>38)</sup> 그렇기 때문에 독

36) 장미주와 설소이는 <보은기우록>의 후편인 <명행정의록>에도 등장한다. 장미주의 경우는 왕경린과 혼인 후 위연청 집안의 혼인과 같은 잔치가 있을 때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설소이는 위천보의 아내 이월혜가 적국 소예주에 의해 위기에 처할 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37) 정지영, 「조선시대 혼인장려책과 독신여성」, 『한국여성학』 제20권 3호, 2004, 8-13면.

38) 이는 <소현성록>에서 양씨부인이 여승의 말을 따르고자 하나 소현성을 비롯한 소운성 등의 남성인물이 불교를 배척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점이나, <완월회맹연>의 만초란이 여성이 되었을 때 정인성이나 주변인물들이 불교를 비난하는 발언하고 있는 점, <보은기우록>에서 승선사의 승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열반하는 것으로 꾸며 재물을 모으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신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설소아의 모습은 유교 사회 안에서 용납되기도 힘들며, 여승이 되는 모습으로 형상화하기도 어렵다. 설소아를 주체적 의지를 가지고 독신으로 남기기 위해 <보은기우록>의 작가는 그녀를 도가에 입문해 지상여선이 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그에 덧붙여 능력을 가진 여성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보은기우록>이 여성의 자각 아래 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은 장미주나 설소아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완월회맹연>과 <옥원재합기연>에서 정인성과 소세경으로 대변되는 남성인물이 비례를 범한 여성을 훈계하고 있다면, <보은기우록>은 그 역할을 위연청만 담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승설에게 똑같이 부여하고 있다. 예법을 내면화하고 더 나아가 시비(是非)를 판단해서 남에게 적용해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백승설의 모습은 여성이 더 이상 남성에 의해서 주어지는 예법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개의 가문소설들의 남성인물들이 다처(多妻)를 두며 이들이 쟁투를 벌이는 모습을 형상화 해 일부다처제 속에서 고통 받는 여성의 현실을 그려내고 있다면, <보은기우록>은 장미주와 설소아로 인해 일부다처제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을 백승설과 위연청이 함께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위연청은 끝까지 백승설 이외의 처를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sup>39)</sup>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에게 부여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가문을 이끌어 나가는 일이 남성의 몫만이 아니라 여성의 몫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 대등한 부부관계로 평가받는 백승설의 모습이나, 자신이 추구하

39) 작품 안에서 다처(多妻)를 두는 것은 유일하게 황제이며 장미주의 부친인 장국구에게 부인 이외에 총희인 화금난이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위지덕과 백양의 경우 부인과 사별 후 양가녀를 첩으로 두는 모습을 보인다.

던 삶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지만 비난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장미주나 설소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은 분명 <보은기우록>의 작가가 가부장제이데올로기에 충실한 여성인물을 재생산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당대 이데올로기에 전면적인 거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여러 층의 미끄러짐을 백승설, 장미주, 설소아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가부장제이데올로기에 균열을 내고 있는 것이다. 대개의 가문소설에서 여가장의 성격을 부여받는 여성인물들이 보이는 행동과 백승설의 행동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이는 백승설이 작품의 남성주인공인 위연청과 혼인한 인물이며 여성주인공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가부장제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인물로 설정하기에는 시대적으로나 작가적인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승설이 다른 가문소설들과 달리 가부장제이데올로기 안에서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가고자 하며 예법에 대한 시비(是非)를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 다른 이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지점은 가부장제이데올로기에 충실하기만 한 인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다.

이는 장미주와 설소아에 이르러서는 더욱 분명해진다. 그녀들이 혼인을 중시한 것은 혼인 이외의 다른 삶의 방도가 없다는 인식 때문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내던지면서까지 배우자를 찾고자 노력을 했던 것이었다. 장미주는 왕경린과의 혼인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개척해나가는 것이며, 설소아는 혼인이 여성의 삶의 전부라는 인식을 초월해서 독신이라는 다른 삶의 가능성을 찾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장미주나 설소아는 비록 온전히 가문을 벗어나 개인으로만 존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삶의 주체가 자신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끝까지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보은기우록>이 백승설과 장미주, 설소아라는 가부장제이데올로기 안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여성인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당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사회 안에서 그 질곡의 해소를 꿈꾸었던 소설 향유층의 꿈과 끊임없는 여러 층의 미끄러짐을 통해 다층적인 균열을 내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가 만나 직조된 것으로 여겨진다.

#### 4. 나가며

본고는 <보은기우록>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이 혼인과 관련하여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 이 작품에 나타난 여성의식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백승설은 유교적 세계관에 충실하며 예법에 따르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시비(是非)를 판단해 적극적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인물이다. 그녀는 혼인 전에는 부친을 도우면서 가사를 주관하고, 혼인 후에는 위씨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한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 노비로 가장하고 들어온 장미주의 의도를 내다보고 훈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장미주와 설소아는 공적 영역으로의 여성의 진출이 막힌 상황에서 혼인을 통해 남은여생을 보내야만 하는 속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일이 생애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배우자를 찾는 인물들이다. 장미주는 다정다감한 부부생활을 하고픈 욕망으로, 설소아는 도학군자를 만나서 학문을 나누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유교적 질서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례(非禮)인줄 알면서도 과감히 위연청과 함께 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연청과 백승설로 대표되는 유교적 질서에 의해서 장미주

와 설소아는 자신들의 욕망을 위연청을 통해서 이루어나지 못한다. <보은기우록>의 중요한 지점은 작가가 장미주와 설소아의 모습을 좌절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일담을 마련해 그녀들이 꿈꾸었던 혼인을 통한 삶의 모습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작가는 장미주와 설소아가 위연청을 연모해 스스로 위연청을 따르고자 한 행동을 비례(非禮)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위연청과 백승설의 가르침으로 회과(悔過)를 한 후 바라던 삶의 형태를 지속해 나가는 모습을 작품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장미주와 설소아 같이 남성인물을 좋아해 남성인물에게 적극적인 애정을 보이는 인물은 <완월회맹연>, <옥원재합기연> 등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 작품 속에서도 여성인물들이 적극적인 애정을 보였다고 해서 처벌을 받고 있지는 않으며, 뛰어난 남성인물에 의해 회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모습이 가문소설 안에서 꾸준히 그려지고 있으며, 이들이 유교적 질서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이 다양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은 여성이 공적 영역에 진출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길이 차단되어있던 상황에서 혼인을 통해서만이 여성이 남은 삶을 꾸려갈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일이 여성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에 대해 가문소설 작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본고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보은기우록> 연작의 후편인 <명행정의록> 속에서 백승설, 장미주, 설소아의 역할에 대한 규명과 여러 가문소설 속에서 여성인물들이 혼인에 대해 드러내는 시각들을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보은기우록>, 한국학중앙연구원 본 18권 18책  
<완월회맹연>, 규장각 소장본 180권 93책(김진세 독해, 완월회맹연12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1995)  
<옥원재합기연>, 규장각 소장본 21권 21책(김기동편, 『월사본고소설전집』 27-30, 아세아문화사, 1980)
- 김기동, 「<보은기우록>과 <명행정의록>」, 『국학자료』 26, 1977, 13-18면  
김홍균, 「복수주인공 고전장편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1-176면.  
문용식, 「보은기우록의 인물 형상과 작품구조」, 『한국학논집』 28 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6, 279-318면.  
문용식, 『기문소설의 인물연구』, 태학사, 1996, 1-272면.  
박애경, 「장편가사 <이정양가록>에 나타난 사족 여성의 삶과 내면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호,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3, 421-446면.  
서정민, 「<보은기우록>과 <명행정의록>의 연작 양상」, 『관악어문연구』 28 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3, 269-288면 .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 1-368면.  
이재춘, 「보은기우록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1-79면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1-188면  
정성희, 『조선의 성풍속』, 가람기획, 1998, 1-352면.  
정지영, 「조선시대 혼인장려책과 독신여성」, 『한국여성학』 제20권 3호, 2004, 5-37면  
정창권, 『한국고전여성소설의 재발견』, 지식산업사 2002, 1-226면  
최수현, 「<보은기우록>의 구성과 갈등구조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2005, 1-107면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2003, 1-421면  
한국여성연구소, 『새 여성학 강의』, 동녘, 2001, 1-380면.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 -<창란호연록>·<옥원재합기연>·<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1-276면

ABSTRACT

Women's consciousness shown in <Boeungiurok(報恩奇遇錄)>

Choi, Sue-Hyun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women's consciousness shown in <Boeungiurok(報恩奇遇錄)> through analyzing female characters' attitude toward marriage.

There are three female characters - Paek Seung-sul, Jang Mi-ju, Sul So-a - along with the male character Wi Yeon-cheong. They all live in a belief system called Patriarchal Ideology, that justifies male domination over women. The female characters in this book, however, are somewhat rebellious on the common belief.

Paek Seung-sul behaves herself in Confucian doctrine while she defines right and wrong of her own accord in certain situations. She tries to make her life better and becomes an active role model for other women.

Jang Mi-ju and Sul So-a admit that women should stay at home, and they are eager to find their husband-to-be. They are fully aware of the fact that a good marriage can provide them a more satisfying, comfortable life. They both recognize that Wi Yeon-cheong would not make a good husband as they wanted. Some time later, Jang Mi-ju are married to another man than Wi Yeon-cheong, and Sul So-a are living by herself. The author does not punish the female characters for not being obedient for Confucian doctrine. Rather, he let them live their own lives whether they are married or not.

The female characters in <Boeungiurok(報恩奇遇錄)> may express the desires of readers who wanted to escape from patriarchal ideology and sexuality in their society. The author may have read their minds and decided to write about it. The intention of author may be to provide catharsis for his readers living with the guilt of their sins of disobedience to patriarchal ideology and Confucian doctrine.

**Key Words** 〈Boeungiurok(報恩奇遇錄)〉, female character, marriage,  
woman conscious, etiquette, fidelity

논문투고일 : 2006. 11. 10
심사완료일 : 2006. 11. 22
게재확정일 : 2006. 12. 1

K C I